

공연장 봄맞이 어떠세요

광주시립예술단체 다채로운 공연

- 문예회관 13일 '봄에 듣는 상송'
- 국악관현악단 14일 정기연주회
- 합창단 15일 '신춘음악회'
- 시향 번스타인 탄생 100년 연주
- 발레단 17일 '명작 갈라콘서트'



조재혁 임한귀 김원중

광주시립예술단체들이 봄을 맞아 다양한 공연을 준비했다.

먼저, 광주문화예술회관(관장 서병천)은 올해 기획공연으로 마티네 콘서트 '11시 클래식 산책'을 새롭게 선보인다. 13일 오전 11시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봄에 듣는 상송'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연은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된다.

1부 공연은 '파리의 다리 밑' '셀부르의 우산' '사랑의 기쁨' '오 상젤리제' 등 상송의 대표적인 곡들을 김이곤의 해설과 트리오 마리의 연주로 듣는다. 이어 2부는 상송가수를 대표하는 '에디트 피아프'의 대표곡들을 연주한다. 소프라노 김지영과 트리오 마리의 연주로 '장밋빛 인생', '고엽', '난, 아무것도 후회하지 않아요' 등을 들려준다. 공연 후 관객을 위해 커피와 머핀을 제공한다. 전석 1만 원(학생 50%), 문의 062-613-8235.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지휘자 김광복)은 올해 첫 정기연주회 제114회 정기연주회 '신춘음악회'를 연다. 14일 오후 7시 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소리꾼 김신옥의 진행으로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가야금 연주자들이 선보이는 가야금 3중주 '나나노난실'로 음악회의 문을 연다.

임금의 정수를 축원하는 곡인 '수연장지곡', 아름다운 마음으로 세상을 열어가길 때 비로소 우리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세상이 된다는 메시지를 담은 '세상을 여는 소리'를 무대에 올린다. 이어 제32회 전주 대사놀이에서 판소리 일부분 장원을 차지한 소리

꾼 전지혜 씨가 '흥보가' 중 '박타령'을 들려준다.

또 '경기굿' 중의 장부거리에서 광대신이 인간에게 복을 주고 흥겹게 노는 모습을 담은 '장부타령'은 김광복 지휘자의 피리로 연주되며 모듬북과 관현악의 협연곡인 '타 : TA'가 공연의 대미를 장식한다.

이날 공연에서는 가수 김원중과 협연무대를 선보인다. '바위섬', '꿈꾸는 사람만이 세상을 가질 수 있지', '직녀에게' 등을 선보인다. 전석 1만 원, 문의 062-613-8243.

광주시립합창단은 제172회 정기연주회 '신춘음악회-합창으로 떠나는 세계여행'을 준비했다. 15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이날 공연에서는 우리나라 곡은 물론 독일, 이탈리아, 러시아, 노르웨이, 중국, 미국 등 각국의 민요, 오페라, 종교, 현대음악을 다양한 합창곡을 선보인다.

특히 임한귀 상임지휘자가 지휘와 해설을 맡아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한다. 각 나라별 음악에 얽힌 배경과 곡 해설이 더해지면서 공연의 재미와 의미를 더할 것이다.

첫 무대는 한국가곡 '진달래꽃', '산유화', '봄이 오면'으로 꾸며진다. 이어 독일 가이벨의 '시에의 한 합창곡' 중 '유랑의 무리', 이탈리아 베르디의 오페라 '에르나니-축제의 노래', 스페인 춤곡 '엘비토'를 들려준다. 또, 러시아의 '카랑가', '트로이카'와 미국의 젊은 작곡가로 최근 크게 각광을 받고 있는 제이크 룬스타드의 '할렐루야', '나온 나온'에 이어 중국 정음성의 '연안송'과 중국민요

'모리화'를 들려준다. 마지막 무대는 우리 민요 '거문도 뱃노래', 뮤지컬 이순신 중 '나를 태우라'를 부르며 마무리한다. 전석 1만 원(학생 50%), 문의 062-415-5203.

광주시립교향악단(상임지휘자 김홍재)은 레너드 번스타인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오는 15일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기념연주회를 개최한다.

첫 번째 무대는 대중적인 음악을 만들고자 했던 미국 작곡가 코플랜드의 '애팔래치아의 봄'으로 시작한다. 이어 재즈와 클래식 음악을 접목해 미국 음악의 새로운 장을 연 명곡, 조지 거쉰의 '랩소디 인 블루'를 피아니스트 조재혁이 선보인다.

공연의 대미를 장식할 곡은 번스타인이 작곡한 뮤지컬 웨스트사이드 스토리 중 '심포니 댄스'다. R석 3만 원, S석 2만 원, A석 1만 원(학생 50%)이다. 문의 062-524-5086.

광주시립발레단은 수시공연으로 '발레갈라콘서트 #2. 클래식 명작발레'를 선보인다. 17일 오후 3시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이번 공연에서는 '돈키호테' 중 '그랑 파드 뒤'를 선보인다. 이중 가장 유명한 3막의 결혼식 그랑 파드 뒤는 고난도의 절묘한 테크닉과 환상적인 춤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공연의 하이라이트는 보리스 아사피에프 음악의 '베니스 카니발'이다. 베니스에서 열리는 수상 축제 가장무도회에서 만난 두 남녀와 친구들의 흥겨운 모습을 그린 작품이다. 전석 1만 원. 문의 062-613-8234. /전문기자 ej6621@kwangju.co.kr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광주시립발레단

민속놀이 체험하고 신명난 사물놀이 즐기고

'얼쑤' 공연... 11일 전통문화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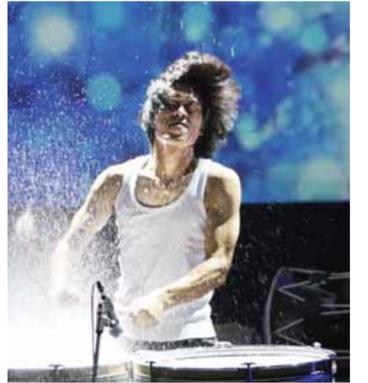
생생한 봄기운을 만끽할 전통놀이 체험과 타악 율림 무대가 펼쳐진다.

일요상설공연 '얼쑤~ 경칩일세'의 둘째 판이 오는 11일 오후 2시 전통문화관에서 열린다. 3시부터는 타악그룹 '얼쑤(사진)'의 신명나는 사물놀이가 예정돼 있다.

먼저 전통문화관 솟을대문 앞에서는 오후 2시부터 놀거리, 만들거리, 먹을거리를 즐길 수 있는 민속놀이 체험이 시작된다. 또한 썩떡을 만들어 먹는 먹거리 체험과 한복을 입고 전통문화를 즐기는 한복체험이 마련돼 있다.

오후 3시부터는 너털마당 야외무대에서 타악그룹 '얼쑤'가 신명난 사물놀이를 선사한다. 이어 네 명의 타악기 연주자와 한 명의 연기가 관객들과 직접 소통하는 '흥'이 펼쳐진다.

공연 팀은 관객들에게 악기를 직접 연주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대북과 통북



오로 힘의 율림을 강조한 '타고'가 공연의 대미를 장식한다. 문의 062-232-1502.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일흔 여섯 최귀순씨 첫 개인전 14일까지 무등갤러리

올해 일흔 여섯의 최귀순씨는 꿈꿨던 여고시절부터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다. 결혼과 함께 자식들을 키우고 집안을 보살피며 자신을 돌아볼 겨를이 없었지만 화가의 꿈은 늘 마음 속에 간직하고 있었다. 지금부터 꼭 10년 전 붓을 들고 아름다운 산천을 화폭에 담기 시작한 그녀는 보고 느낀 것들을 수묵담채로 풀어내며 행복감을 느꼈다.

초암 최귀순씨가 14일까지 광주 예술의 거리 무등갤러리에서 생애 첫 개인전을 갖는다.

전시 타이틀은 '인생 풍경'으로 금오도, 하조대, 소매물도, 백두산 등 아름다운 풍광들을 세심한 붓질로 표현해낸 작품들이다.

2008년 박문수 선생을 사사하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최씨는 이듬해 여동 미술대전에서 특선했으며 조선대 평생교육원 한국화 과정을 수료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2017년 전남도미술대전 특선작인 '설악산 오색 용추폭포', 2012년 특선작 '설악산 비룡폭포' 등 공모전 입상작들도 만날 수 있다. 문의 062-236-2520. /김미은기자 mekim@



'비룡폭포'

천원의 낭만 '선 클라비어' 공연... 12일 문예회관

행복한 문화 충전 제93회 천원의 낭만 '선 클라비어(사진)' 공연이 오는 12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은 광주시와 (사)아시아공연예술위원회가 함께 진행한다.

'선 클라비어'는 조선대학교 사범대학 음악교육과 및 대학원 출신으로 음악활동과 후진양성을 연구하는 피아니스트 그룹이다. 피아니스트 자신들의 발전과 함께 광주지역 피아노 음악의 변화와 향상을 위해 활동중이다.

이번 공연에서는 'piano solo', 베토벤 곡부터 브람스 헝가리안의 댄스 '1 piano 4 hands'와 더불어, '1 piano 6 hands', '2 piano 8 hands'까지 다양한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또 소프라노 나



혜숙이 윤학준의 '미중', 가스탈론의 '금지된 노래' 등을 준비해 클래식한 피아노공연부터 성악까지 다양한 무대를 꾸민다. 입장료 전석 1000원. 문의 062-226-2032. /전문기자 ej6621@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국제보청기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내 집같은 편안함!
고객님의 여행의 휴식을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건강한 우리 음식 한정식
30년 전통의 한정식, 당일 주중 점심 특선 오전 식사

알찬 행사를 위한 연회장
세미나를 위한 명상 사당이 갖춰진 등-소규모의 연회장

정겨운 만남은 품격있는 **금수장호텔 아리랑하우스**

www.geumsoojang.com 예약문의 (062) 525-2111 계림동 흥플러스 건너편

광주금수장호텔
GEUMSOOJIANG HOTEL